■ 보이스피싱으로 4000여만원 사기 당할뻔한 40대 여성의 아찔했던 순간

"저금리에 현혹… 현금 전달 의심"

금리 2.8% 문자 받고 연결… 앱 설치 등 요구
"상환해야 할 위약금 피할수 있다며 현금 거래"
"수법 교묘… 통화하다보니 의심스런 상황 많아"

"설마설마 했죠. 이런일을 당할 줄 몰랐어요."

최근 보이스피싱에 속아 4300만원을 전달할뻔한 A(40대·여)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업에 쓸 자금을 한 순간에 잃을뻔해서다.

A씨는 최근 다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대출정보를 알아보던 중 금리 2.8%에 7000만원의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집 담보대출급으로 이자가 비슷해 혹했다"며 "빌릴 수 있는 금액도 많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털어놨다.

A씨가 연락을 하자 국민은행 관계자라고 소개한 보이스피싱범 B씨는 신분증과 건강보험납입서 등을 제출해야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앱 설치를 요구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A씨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여신한정계약 위반 벌금 388만원과 대출금 4300만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며 "하지만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는 론플레이어 방식으로 하면 위약금을 피할 수 있다"고 회유했다.

A씨는 승낙은 했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심이 들었다. 자신의 집이 노출되는 것을 걱정한 A씨는 자택 부근 본인의 차량 안에서 담당자 C씨를 만났다.

C씨를 만나 현금을 건네자 A씨에게 한통의 전화가 왔다. 보이스피싱범 B씨였다. B씨는 A씨에게 "C씨 만났느냐. 다른데도 가야하니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기당할뻔한 A씨.

C씨를 보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기다려달라. 상환됐는지 확인해보겠다"며 국민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핸드폰이 이상했다. 인터넷도 잘 안됐고, 전화 시 액정도 절반 이상 다른 화면이 보이지 않았다. A씨의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A씨는 C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뒤 국민은행 콜센터에 문의하자 콜센터 직원은 "보이스피싱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라"고 했다.

A씨는 "돈 못줄 것 같다"며 C씨에게 준 현금가방을 되찾고 112에 신고했다. C씨는 도주했고, 10여분 뒤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당시 콜센터에 여러번 전화했지만 ARS 과정 없이 담당자가 바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은행 번호여서 의심을 거뒀다"며 "수법이 교묘하게 짜여 있어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피싱범들이 갖고 있어 불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도민들에게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A씨는 "피싱범들은 우리들의 약한 점을 제대로 파고든다. 도민들도 이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범죄에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보이스피싱사범 60명 '덜미'

경찰, 최근 두달 집중대응
범죄이용 계좌 69개 정지
피해금 3억여원 회수 조치

최근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 대응기간을 운영한 결과 60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을 검거하면서 보전된 금액은 3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범죄에 사용된 계좌 69개를 지급정지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언론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경찰이 피싱범을 검거하거나 피해를 예방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로 관련 범죄 신고가 활성화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올해 보이스피싱 검거 및 예방에 공을 세운 시민 15명에게 총 8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 1~2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3800여만원을 편취한 A(22)양과 공범 B(22)양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을 전달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200% 사기"라며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전화를 끊고 다른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성기자

애월 한담해변 산책로 낙석 '아찔'

6~7m 절벽에서 폭 1.5m 크기 바위 떨어져

제주 애월읍 곽지리 한담해변의 산책로에서 '치소기암' 절벽 일부가 지난 17일 밤 사이 무너지면서 산책로가 통제됐다.

바위는 약 6~7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바위는 폭 1.5m, 높이 1m 가량 크기로 산책로 바로 옆 공간에 떨어졌다. 바위는 추락 당시 충격으로 두 덩이로 쪼개졌다. 주변에는 잘게 부서진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무너진 절벽은 애월읍 곽금 3경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치소기암 절벽의 일부다.

다행히 바위가 무너질 당시 산책로를 걷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애월읍 사무소에 따르면 바위가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오후 10시쯤 산책로 주변을 통제하고 안전선을 설치했다.

바위가 떨어진 원인으로는 최근 잦은 비날씨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근에 공사 현장이 나 민가도 없고 밀집 상업시설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애월읍 관계자는 "비가 내리면서 쪼개진 부분에 빗물이 스며들어 벌어지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며 "주변 공사장이나 상업시설도 없어 자연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광객들은 낙석사고로 산책로가 통제된 사실을 모른 채 왔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담해안 산책로를 찾은 방문객 일부가 안전선을 넘어 현장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돼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 지적이 일고 있다.

오후 11시30분쯤 현장에 도착한 공무원들은 관광객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관계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입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시청 주관부서에 보고해 추가 조치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지난 17일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 산책로에서 폭 1.5m, 높이 1m 크기의 바위가 떨어졌다. 낙석 사고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희만기자

과속 적발 '구간 단속' 감절 늘린다

경찰, 올해말까지 14곳에 장비 53대 신규 설치

속보=교통단속을 통해 지난해 수백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정작 '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본보 7일자 4면**)과 관련 제주경찰이 '구간 단속'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20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구간단속장비 53대를 14개 구간에 새롭게 설치한다. 이는 기존 10구간·24대(올해 4월 기준)이던 구간단속장비를 24개 구간·53대로 갑절 이상 늘리는 것이다.

구간단속장비 확대는 고정식(지점) 단속장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이뤄졌다.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갱거루식 과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량 주행속도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에서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7년 17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되레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구간단속장비는 설치 후 사고건수가 42.1%, 인명피해는 45.4% 감소시킨다는 감사원의 분석 결과(2018년)가 발표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6도로 등 5개 구간에는 구간단속장비가 설치돼 지난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나머지 구간도 오는 10월 중에는 설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교통단속으로 부과된 교통 범칙금·과태료는 147억4100여만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2019년 120억여원, 2018년 114억여원보다도 20억~30억원 이상 더 부과된 것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여자화장실 있다가 도주

제주도내 한 해수욕장에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발각되자 달아났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도내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 있다가 발각되자 도주했다.

이 남성은 화장실 칸 안에 있다가 발각돼 여성 이용객들이 항의하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화장실 안에 불법 촬영기기는 설치되진 않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도주한 남성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그랜드 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전 파격할인!!
구매고객 20만원상당 녹용 선착순증정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청능사」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자 전화 주십서! 기다렸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겹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서사라 사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